

# Fractal

(프랙탈)



김은주

5~6<sup>th</sup> March 2015

---

# Table of Contents

---

## **I . Review 1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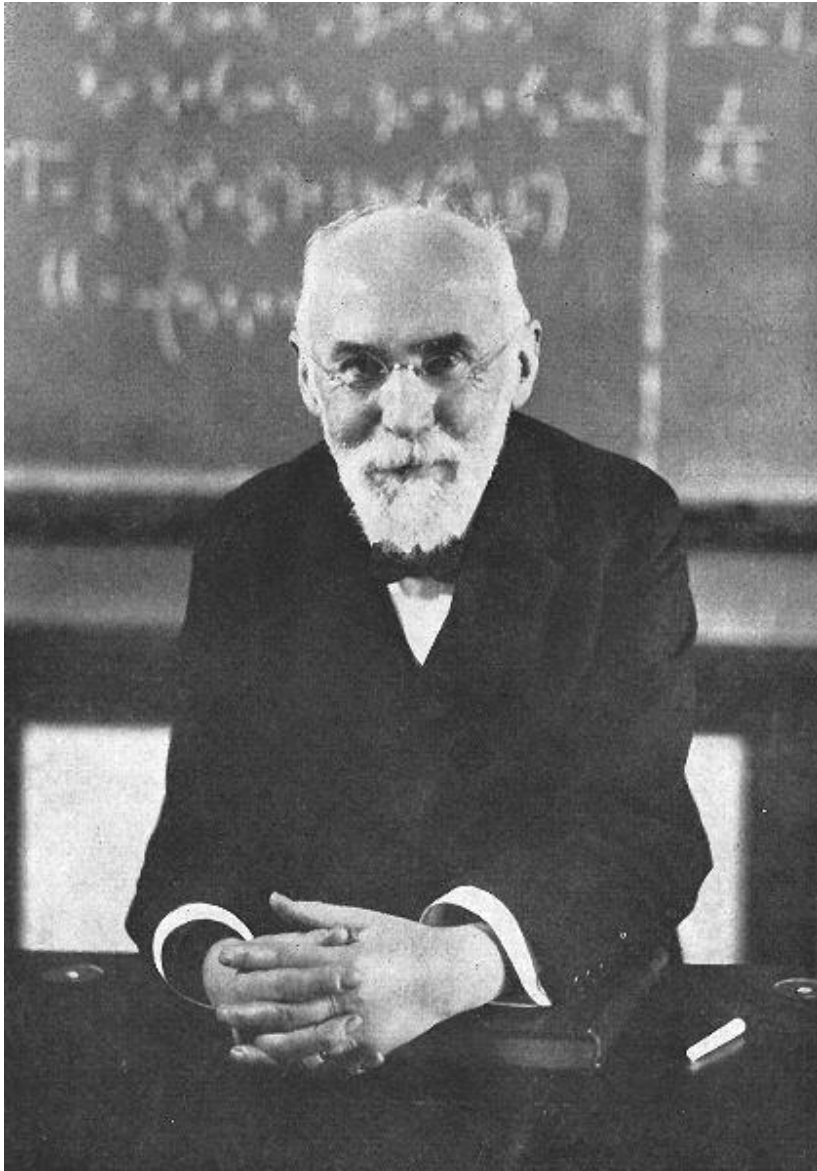
1. What is Chaos Theory?
2. E. N. Lorentz의 Chaos theory
3. Strange Attractor(기이한 끌개)
4. Turbulence(난류)

## **II. Fractal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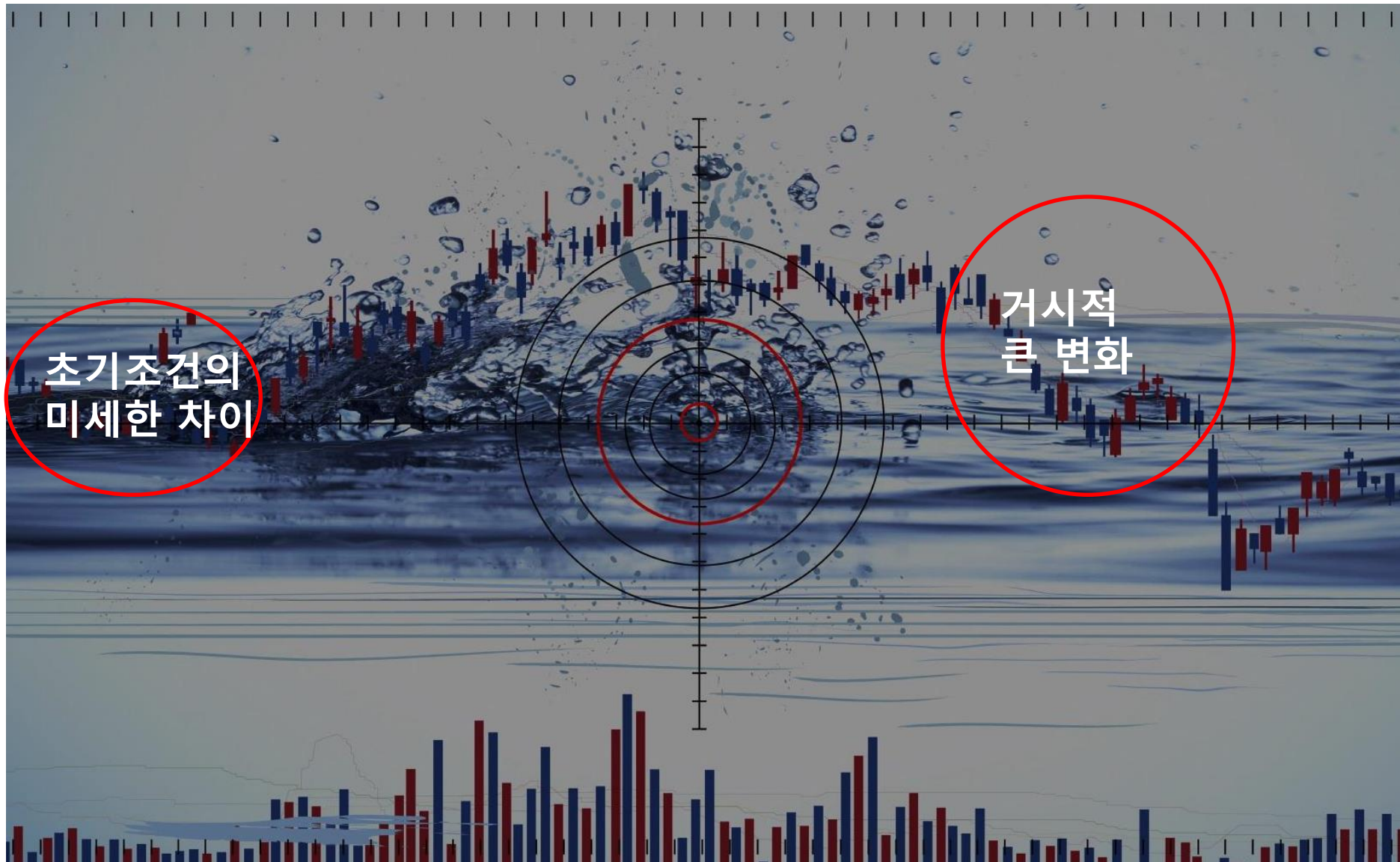
1. Peano Curve (페아노 곡선)
  2. Cantor Set (칸토어 집합)
  3. Koch Curve (코흐 곡선)
  4. Sierpinski Carpet & Curve  
(시에르핀스키 삼각형과 카펫)
  5. Benoît B Mandelbrot (만델브로트)
  6. Multi-Fractal (다중 프랙탈)
-

### 카오스 이론(chaos theory)이란?

-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으로 보이면서도 나름대로 질서와 규칙성
  - 초기조건의 민감성 & 이상한 끌개
-



- 1987. MIT 기상학과 교수
- 1963. <대기과학 저널>에 <결정론적인 비주기적 유통 (Deterministic Nonperiodic Flow)>을 발표
- 수차의 운동도 카오스계로 해석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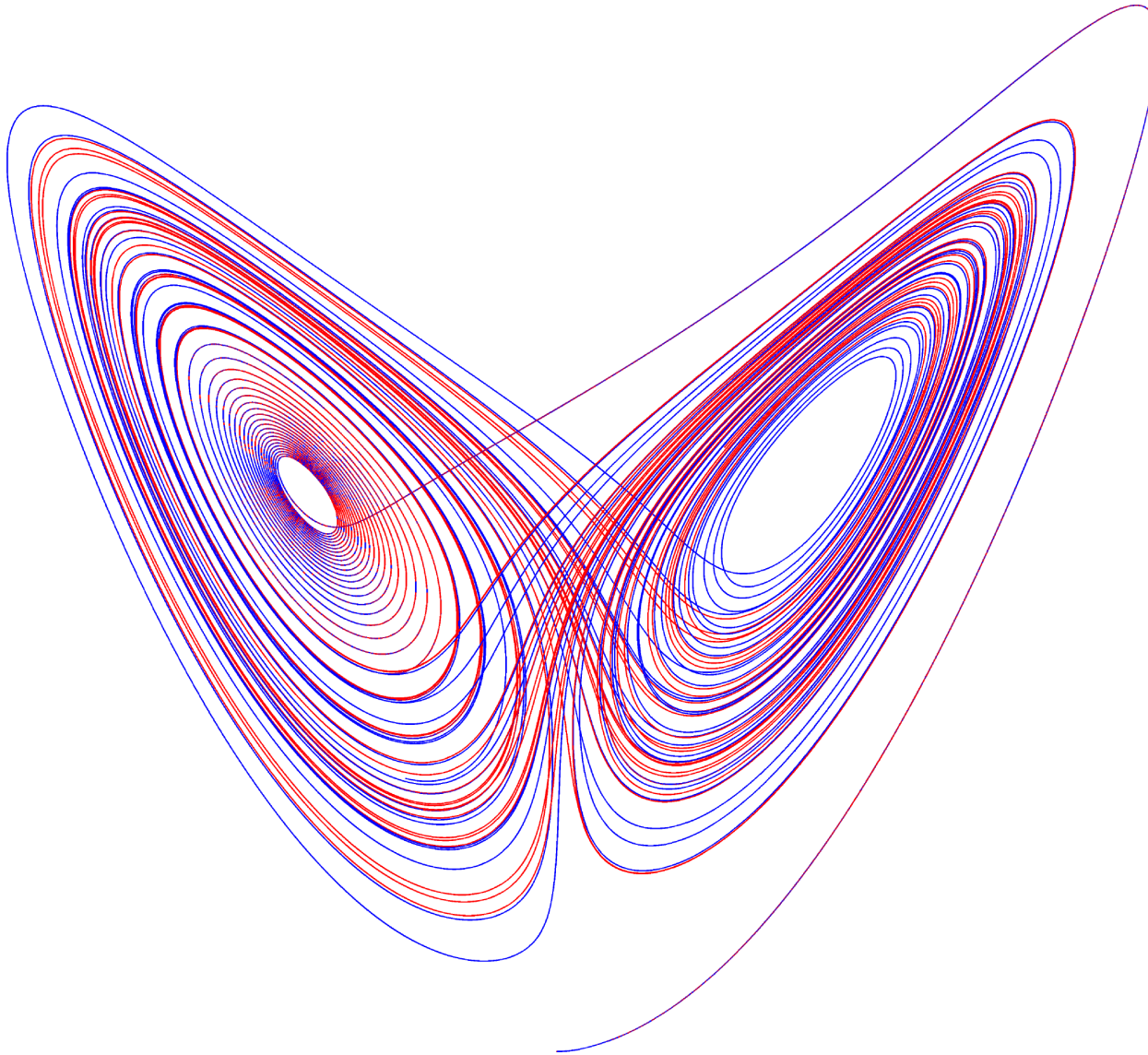
James Q. Wilson(제임스)  
: 미국 정치학자

&



George L. Kelling (조지)  
: 미국 범죄학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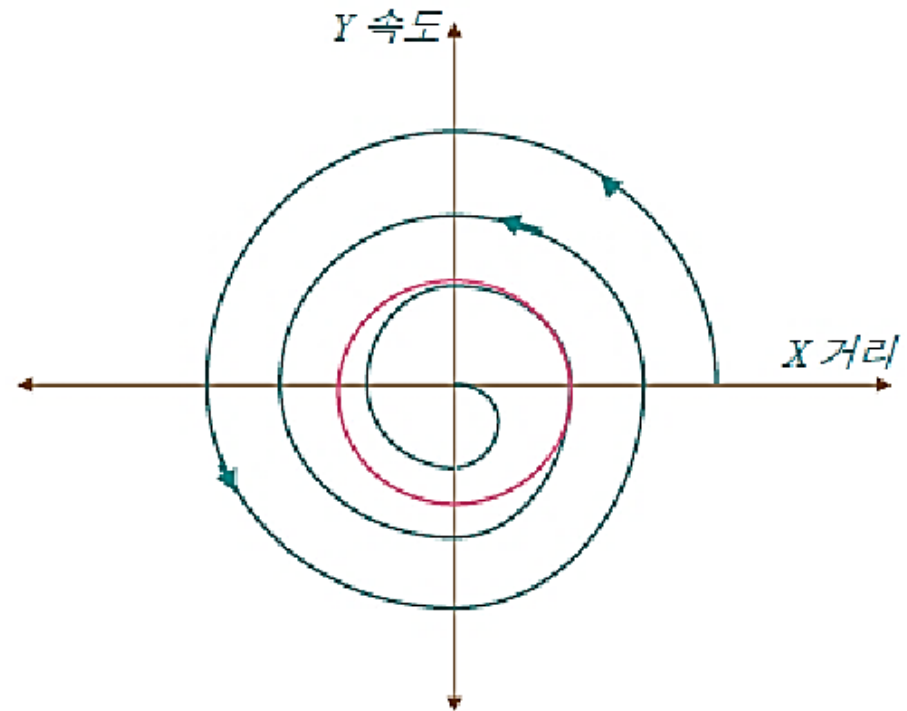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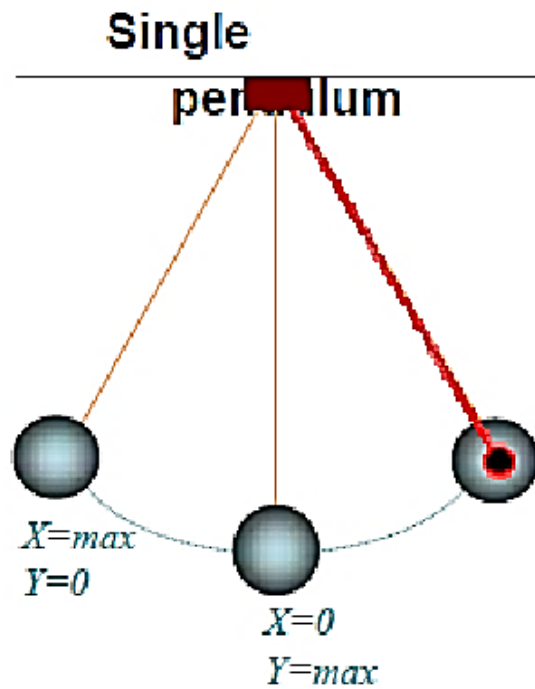
- ▶ 1982년 3월: Broken Windows Theory 발표
- ▶ 내용: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, 그 시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,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



**기이한 끌개**  
(Strange attracto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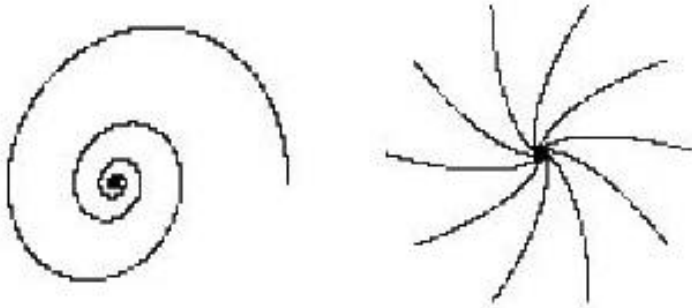
: 구체적이고 깨끗한  
형상이 아닌  
모호한 모습의 끌개





위상공간(State Spac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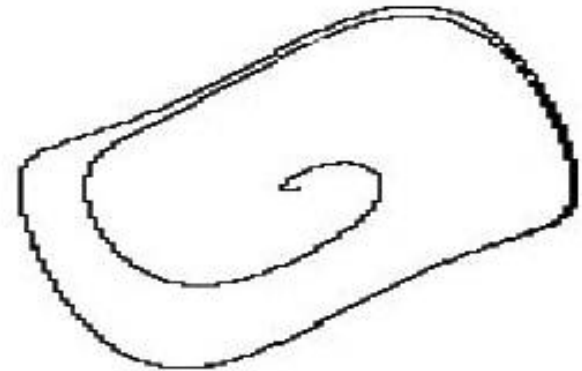
고정점 끌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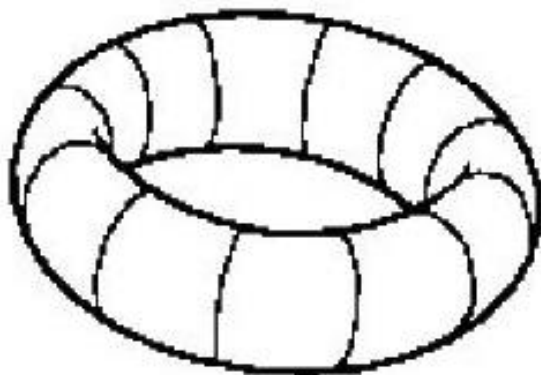
포커스

교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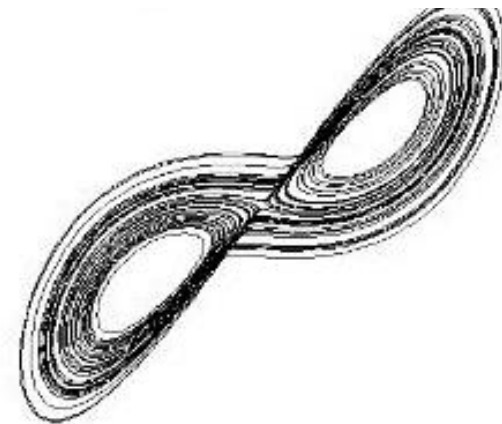
한계순환 끌개



토러스 끌개



기이한 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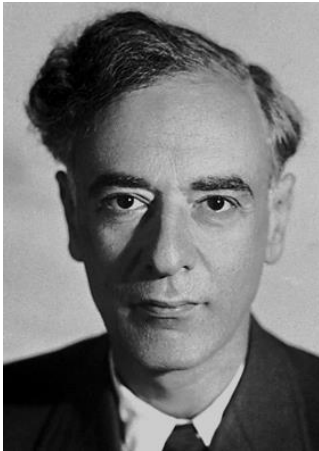


### ▶ Turbulence(난류)란?

- 운동하고 있는 유체에 있어서, 속도나 압력이 **불규칙하게 변하는 흐름**

### ▶ "난류는 이론가의 묘지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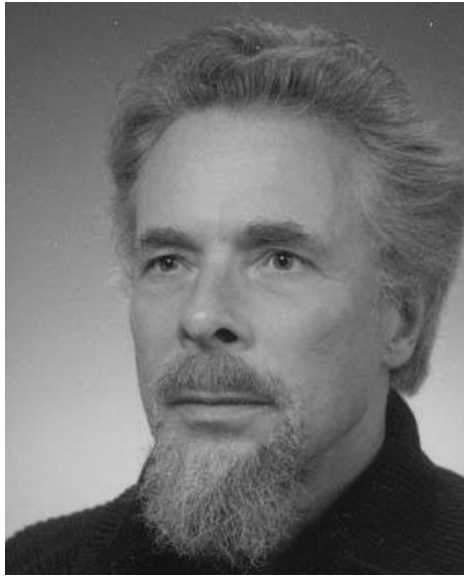
### ▶ 1970년대 이전:



란다우 (L. D. Landau)  
: 러시아 이론 물리학자



호프 (E. Hopf)  
: 독일 수학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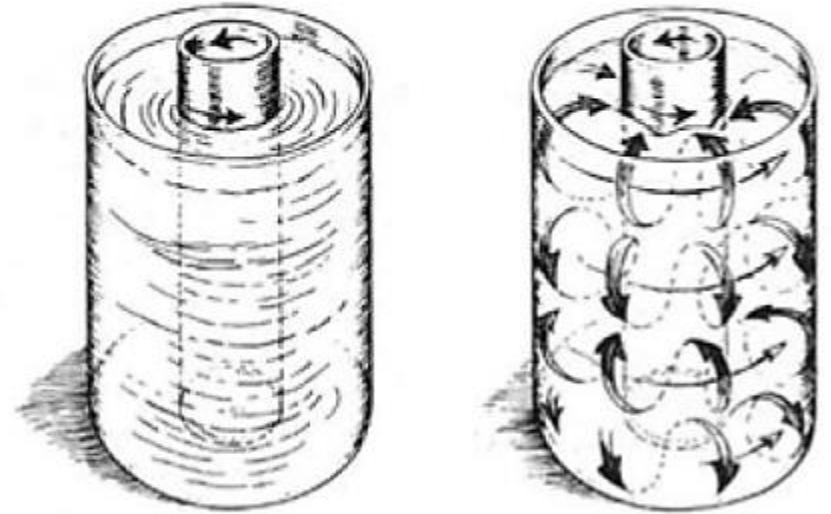
Floris Takens (타켄스)  
: 네덜란드 수학자

&



David Ruelle (루엘)  
: 벨기에 수학자 물리학자

- ▶ 논문: " 난류의 본질에 관하여"(1973)
- ▶ (위상공간) 에너지 In = 토러스에서 한계순환고리, 마침내는 점으로  
(위상공간) 에너지 Out = 끌개 점점 커짐
- ▶ 유체와 같이 에너지 균일하지 않은 경우: 끌개가 급격한 수축 팽창 반복  
결국, 기이한 끌개 만듦



- ▶ H. L. Swinney(스위니) & J. P. Gollub(골럽)
- ▶ 연구: 바깥실린더는 정지되어 있고 안쪽의 실린더는 회전하는 두 개의 실린더사이의 유체 운동에 대하여
- ▶ 회전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했을 때, 유체의 운동은 프랙탈 차원의 기이한 끌개 모형을 형성

# Table of Contents

---

## I . Review 1

1. What is Chaos Theory?
2. E. N. Lorentz의 Chaos theory
3. Strange Attractor(기이한 끌개)
4. Turbulence(난류)

## II. Fractal

1. Peano Curve (페아노 곡선)
  2. Cantor Set (칸토어 집합)
  3. Koch Curve (코흐 곡선)
  4. Sierpinski Carpet & Curve  
(시에르핀스키 삼각형과 카펫)
  5. Benoît B Mandelbrot (만델브로트)
  6. Multi-Fractal (다중 프랙탈)
-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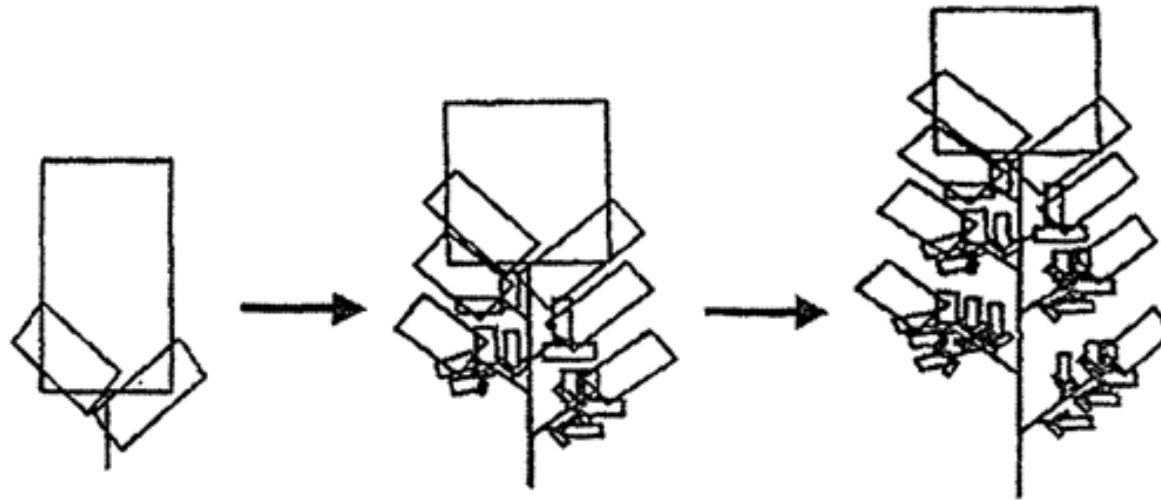




- 린덴마이어(Lindenmayer) or L-시스템
- 나뭇가지가 일정한 길이의 비가 될 때마다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다

### Fractal(프랙탈)이란?

-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 되는 구조
  - 라틴어의 부서진다(조각나다)는 의미의 동사 '프란게리(frangere)'의 형용사형인 '프락투스(fractus)'라는 낱말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단어
-



5. Overlapping(중첩)

6. Repetition (반복)





- ▶ G. Peano (페아노): 1858~1932  
: 이탈리아의 수학자, 논리학자
- ▶ 1890년경 '공간을 채우는 곡선 (Space-filling Curve)'를 발견
  - 곡선이란 구부러지고 변형되는 선에 불과하여 어떻게 구부러지던 지든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자들 한테는 상식.
  - BUT! 페아노는 곡선을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뒤틀어서 그것이 그려지는 종이를 전부 채울 수 있도록 만들
  - 2차원 평면을 채우는 모든 점의 집합은 곧 2차원 성을 가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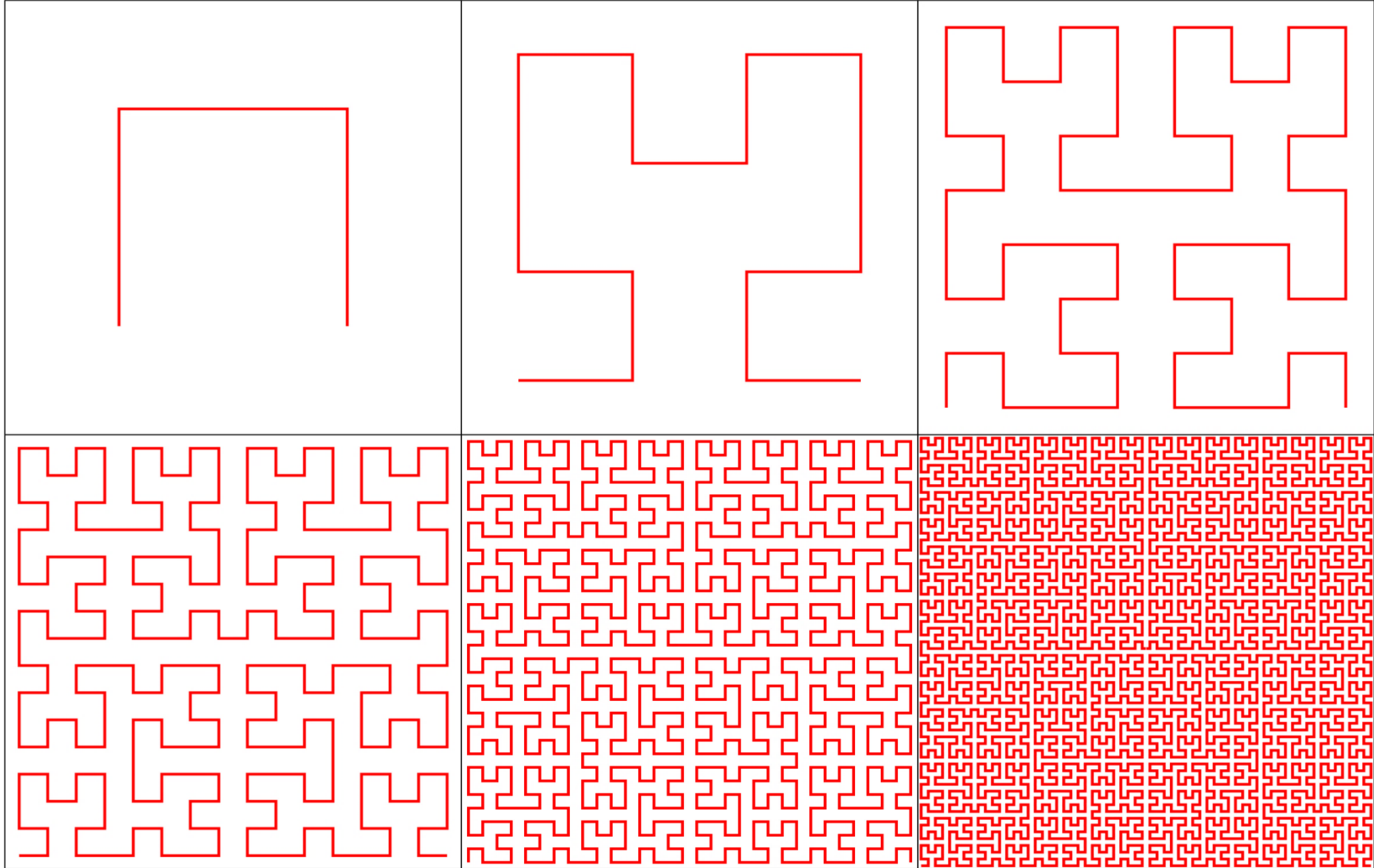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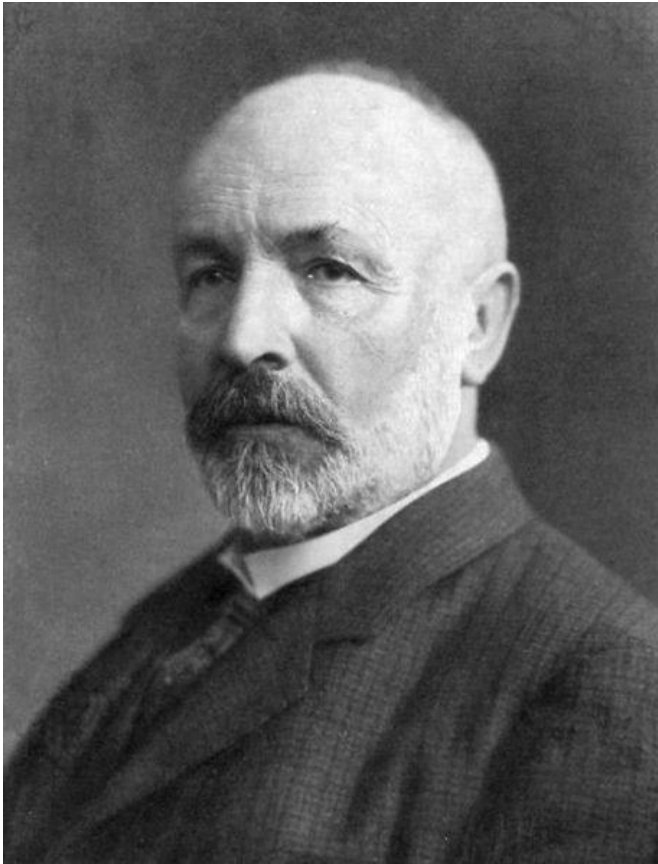
- ▶ 기울기도 없고 차원조차도 애매한 이런 파격적인 곡선은 그 당시 수학자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혹스러운 것이었음
- 푸앵카레 조차도 페아노 곡선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
- 당시 수학자들은 페아노 곡선을 '괴물의 집'이라 불렀음



## II . Fracta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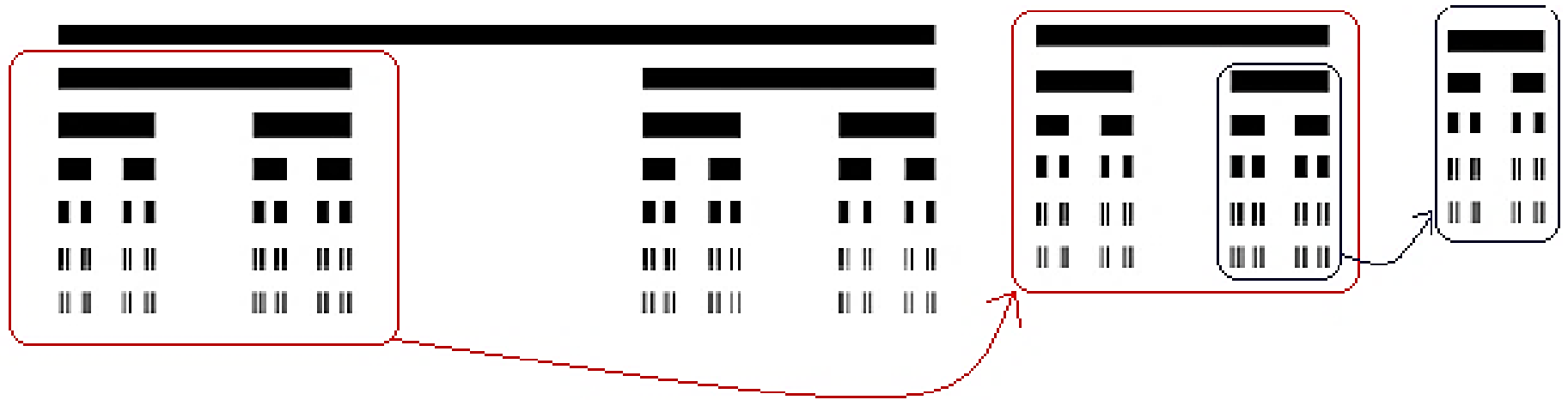
### 1. Peano Curve (페아노 곡선)





▶ Georg Cantor(칸토어): 1845~ 1918  
: 러시아에서 태어난 수학자

▶ 칸토어 집합  
: 0과 1 사이의 실수로 이루어진 집합.  
[0,1]로 시작하여 각 구간을 3 등분  
하여 가운데 구간을 반복적으로  
제외하는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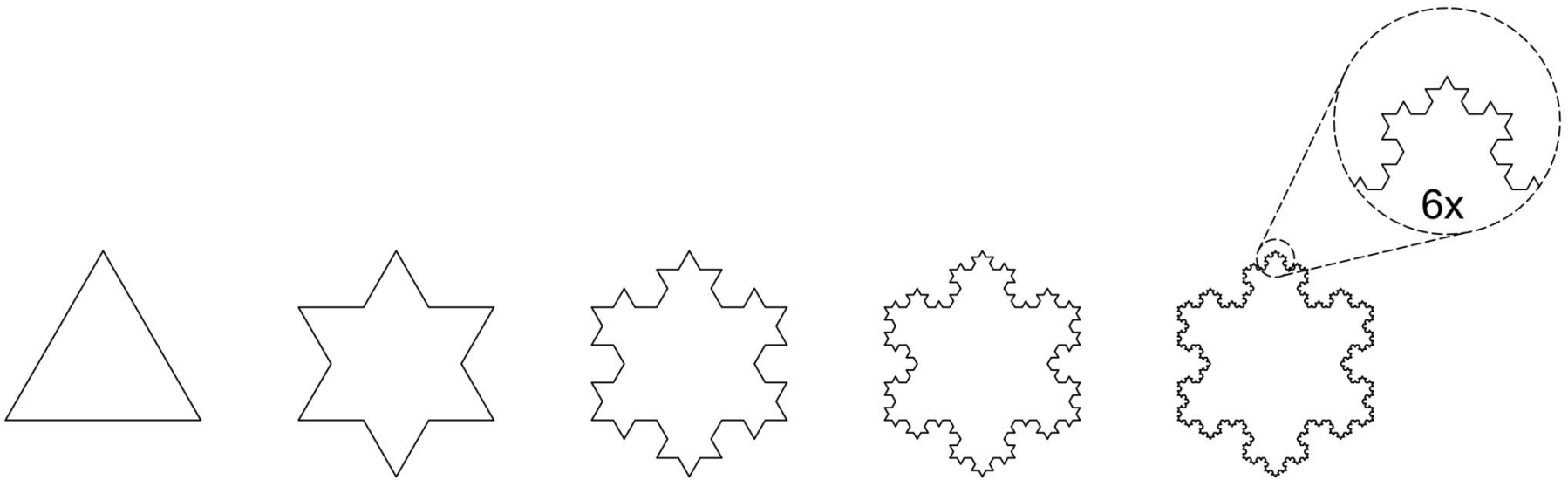


- ▶ 무한히 많은 점은 모였으나, 전체를 합한 길이가 0인 이상한 집단이 만들어짐.
- ▶ 이 집단의 아무 부분이나 선택해서 적당한 배율로 확대해 보면 전체를 닮은 자기 유사성(self-organization) 가짐



▶ Helge von Koch(코흐): 1870~ 1924  
: 스웨덴 수학자

▶ 코흐 곡선  
: 자신을 닮은 네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있음. 네 개의 부분 중에서 하나를 택해 확대경으로 정확히 3배 확대하여 보면 그 부분은 전체와 똑같은 모습을 띄게 됨



Koch Snowflake fractal - progression of scales

--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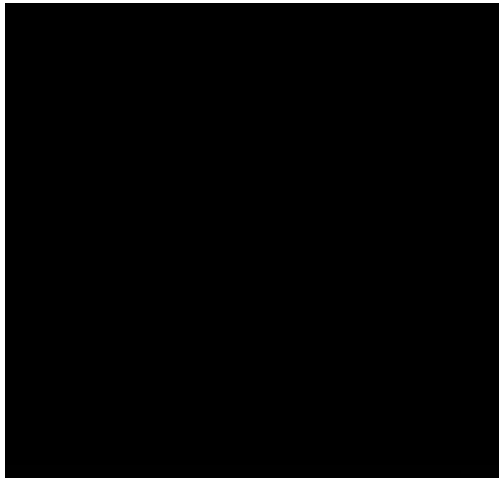
▶ Wacław Sierpinski (시에르핀스키)  
: 1882~ 1969, 폴란드 수학자

▶ 시에르핀스키 삼각형(가스켓)과 카펫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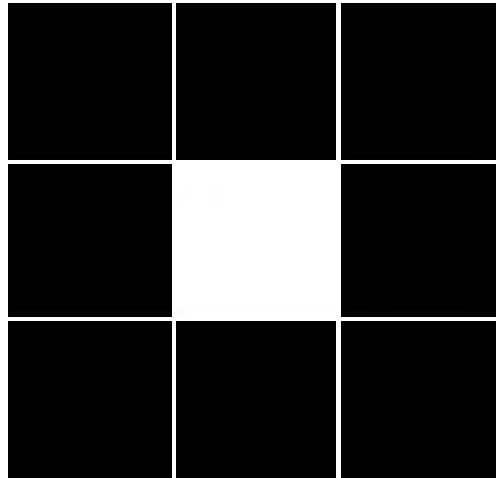
- : 1. 정삼각형 하나에서 시작  
2. 정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이으면  
원래의 정삼각형 안에 작은 정삼각형  
만들어짐. 이 작은 정삼각형 제거  
3. 남은 정삼각형에 대해서 2번 시행.  
4. 3번을 무한히 반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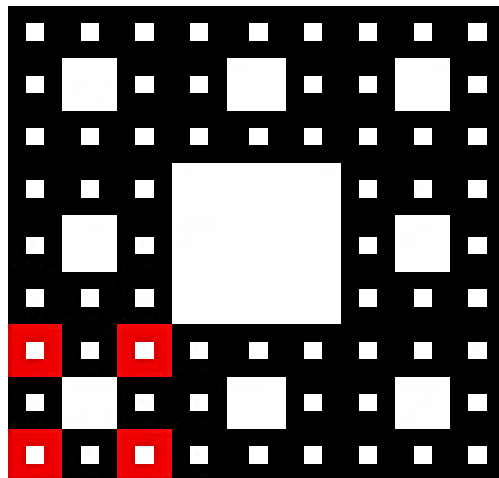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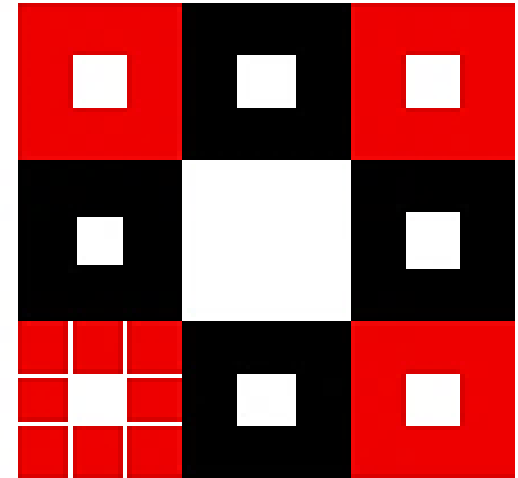
**C(0)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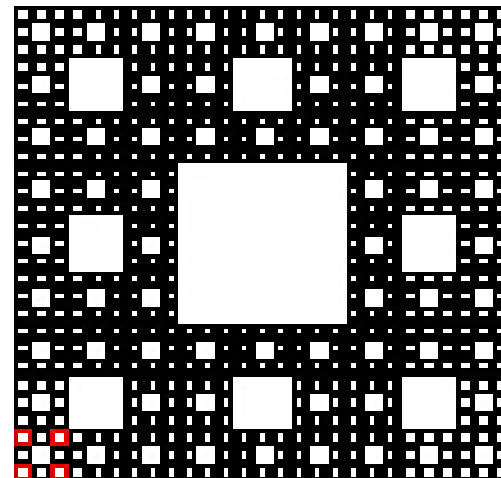
**C(1)**



**C(2)**



**C(3)**



**C(4)**



- ▶ Benoît B Mandelbrot (만델브로트)  
: 1924~ 2010,  
프랑스와 미국의 수학자
- ▶ 1982년에 만델브로트는  
<The Fractal Geometry of Nature>  
라는 책을 펴냄
- ▶ Q. 영국의 해안선의 길이는 얼마나  
될까?

## II . Fractal

Q. 영국 해안선의 길이는?



Unit = 200 km,  
Length = 2400 km (approx.)



Unit = 100 km,  
Length = 2800 km (approx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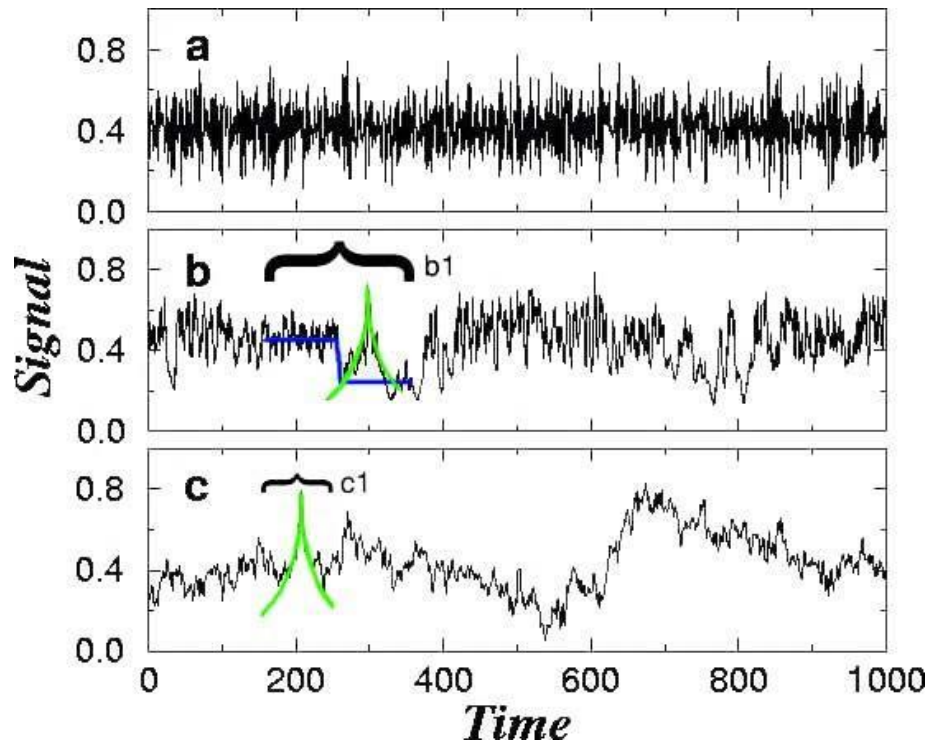
Unit = 50 km,  
Length = 3400 km (approx.)

- ▶ 지도를 놓고 선을 긋는 것 & 실제로 거닐면서 측정하는 것  
= 큰 차이
  - 자의 길이가 작아짐에 따라 점점 더 작은 크기의 만과 반도를 따라가며 재야하기 때문에 해안선의 길이는 더욱 길어짐
  - 해안선의 길이는 더 작은 크기의 만과 반도를 연결한 선의 **무한집합**으로 생각할 수 있음
  - ▶ 이러한 형상들은 분석하는 가장 현명한 관찰방법은 **복잡한 현상들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현상의 모양 하나를 정하고 이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임**
  - **프랙탈 이론을 응용하면** 설명이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복잡한 자연의 형상을 단 몇 개의 반복형 수식으로 나타내고 또한 미적으로 그려 낼 수 있음
-

- ▶ 우리가 앞에서 본 페아노 곡선, 칸토어 집합, 코흐 곡선 등은 전체를 보아도 그 일부분만 보아도 동일한 차원
  - ▶ 그러나 자연계나 사회경제계에서 관찰되는 많은 수의 구조는 이처럼 완벽하고 매끄러운 자기유사성을 가지지 않음
-

- ▶ 측정하는 부분마다 그 프랙탈 차원이 다른 구조가 섞여있는데, 이를 다중프랙탈(multi-fractal)이라고 정의
  - 복잡계 내에는 자기유사성을 지닌 프랙탈 구조가 여러 곳에 깃들여 있는데, 복잡도가 증가하면 프랙탈 구조는 하나만이 나리고 여러 개가 겹쳐진, 즉 다중프랙탈 구조를 가짐
  - 하나의 차원으로 복잡계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, 부분마다 변화하는 다양한 차원을 가진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복잡계를 파악
-





- ▶ 신호의 부분부분마다 나타나는 프랙탈은 **군데군데 뽀족한** 모양으로 특징지어짐
- ▶ 이러한 특징: 특이성
- ▶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는 점 : 특이점
- ▶ 이 부근에서는 지수함수적인 급격한 변화가 관찰

